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플로렌스 크레인과 순천의 장미

얼마 전 인터뷰를 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다 올해로 내가 식물 세밀화가로 일한 지 16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은 처음 식물을 그리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이팝나무에 꽃이 열여섯 번이나 피고 지는 시간을 지나온 셈이다.

그동안 내가 그린 식물 대부분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의뢰받은 종이였다. 예산을 들여 그림으로 기록하려는 식물은 한국특산식물, 멸종위기식물 또는 기관이나 정원을 대표하는 주요 종이 많았다.

이왕 하는 기록이라면 특별한 장소에 분포하는 특별한 종을 그리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식물을 그리면서도 왜인지 내 마음속에는 가까운 곳의 흔하기도 흔한 식물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식물에 인간 기준의 순위를 매기는 것에 지쳐 있었던 것도 같다.

하나의 전공에 오래 임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내게 만나자 연락해오는 사람들 또한 직업, 학력, 경제, 문화적 기득권층뿐이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곁에 대단한 사람들을 두는 게 무슨 문제냐고도 말하지만, 나는 이런 흐름이 내 생각과 삶을 너무 편협하게 만들 것만 같았다. 권위에 갇혀 좁은 시선으로 내 경험 밖의 세상을 내려다 보는 비현실적인 나로 살고 싶진 않았다. 그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느 날 식물 조사를 위해 순천으로 출장을 갔다. 비가 내려 조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그간 다녀오리라 메모해둔 순천 기록고 역사박물관에 들렀다. 박물관에는 내가 보고 싶은 책의 초판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국의 들꽃과 전설(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이 책은 영어로 쓰인 최초의 우리나라 야생화 책이자, 우리나라 식물세밀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알려진다.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Florence Hedlestone Crane, 1888~1973)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선교사인 남편 존 크레인과 순천에 자리를 잡은 후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던 아주 보편적인 선교사 가족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그림도 잘 그렸다. 소질을 살려 순천에서 만난 들꽃과 나무를 한 종 한 종 그림으로 그려냈다.

크레인의 기록은 개화 시기에 따라 월별로 분류되어 있다. 5월 이맘때의 단락에는 100여 년 전 당시 순천에 피어난 다양한 장미속 식물이 그려져 있다. 해당화, 월계수, 찔레꽃 등등... 그림을 그리다 이름 모르는 식물을 발견하면 그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물어 국명을 기입했다고 한다. 책에 월계수 대신 월계꽃, 찔레꽃 대신 찔레나무꽃이라 쓰여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듯하다.

크레인이 기록한 식물은 연구자들이 훃할 특정 식물

도, 특별한 장소의 식생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분류기가 잘 드러난 과학 일러스트도,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없다. 크레인의 이력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은 1910년 순천이라는 지역에 흔히 존재하던 식물을 기록한 보편성에 있다. 물론 기록이 개인의 일기장으로 끝나지 않고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당시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식물학자인 나카이 다케노신의 감수를 받는 등의 혜택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고도 그의 기록은 특별하다. 이 특별함은 훌륭하고 대단한 성과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눈에 비친 모든 식물을 평등하게 바라본 포용의 가치다.

박물관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직원분이 내게 다가와 크레인의 그림이 그려진 파일과 스티커, 엽서를 주었다. 나는 크레인에게 보내는 짧은 글을 엽서에 썼다.

박물관에서 시대로 내려오는 길 오래된 아파트 담장에 네 다섯 품종의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담장 속 장미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도, 주요 품종으로도 보이지 않았으나 웬지 장미 그림 담장을 둘러싼 아파트 풍경이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흔하디 흔한 식물이 별 이유 없이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 정성껏 그려진 모습을 본 경험은 내 생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박준규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미세먼지와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대 초반 이후로는 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봄철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공기질의 문제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봄철은 일교차가 심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이 자주 발생하여 기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천식의 경우 호흡기의 부종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꽃가루는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접촉성 피부염 등의 질환이다. 이들 질환은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물론 삶의 질을 심각히 떨어뜨려 사회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마저 있다. 천식환자의 경우 역시 꽃가루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는 웬만한 노력으로는 예방하기가 어렵다. 미세한 꽃가루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공기 중 흐름을 타고 수십 km에서 수백 km까지 이동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감기는 전신 근육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은 가려움증이 있는 것이 감기와 차이점이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만성 비염인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후각세포를 손상

시킬 수 있다. 진단방사선 검사를 통해 판별한 이후 만성 부비동염을 치료한 후에 비염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봄철에는 실내의 공기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초미세먼지라는 표현이 많아지는데 입자가 작은 먼지는 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매우 안 좋다. 또한 이런 작은 미세먼지는 수에 용해되어 있는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중금속 등을 함유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봄철에는 되도록 외부 활동을 줄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HEPA필터 같은 미세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는 무엇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고 이어 약물치료를 한다. 또한 면역치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소량에서 단계적으로 더 높은 농도로 일정하게 높여가며 노출시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이다.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은 호흡기계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침, 뜸, 전기침 치료를 하며 한약을 병용하여 대증적인 치료 및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킨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년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즌이 끝나면 치료를 종료한다. 서두에 언급한대로 천식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었기에 1년에 20일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복용할 수 있다.

기고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어렵게 피워낸 꽃봉오리라 더 아름답다

가중과 혼란만을 자초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권한, 조직, 예산의 이양 없이 부담만 늘었다는 불만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모지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1기 위원회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이 '자치경찰'의 지속 가능한 꽃봉오리 세 송이를 피워 낸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찰관서가 인사, 예산, 권한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을 위한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였다. 치안 인프라도 촘촘해졌다. 전국 최초로 전남 22개 모든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 시군-경찰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현재까지 204건의 안전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직접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섬 주민들의 제안을 시작으로 순천대,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체계'를 개발했다. 현재 고형경찰서와 고형군이 힘을 모아 드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에서부터 예측, 경보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섬 맞춤형 스마트 통합 치안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 1074분을 선정하고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배회금지기 보급으로 특별한

안전망이 구축됐다.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대폭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정책 발굴부터 현장 활동까지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 폭을 넓혔다. 주민-경찰-시군이 지역안전 주민참여단을 꾸려 지역의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치안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주민이 교통 시설 개선에 참여하고, 경찰-지자체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사업'도 호응이 높다. 생활 속 치안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전남자치경찰 치안리빙랩'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주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명령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이다. 치안 행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면 치안 패러다임이 주민과 지역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최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정부합동 평가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기 위원회가 봄을 알리는 꽃봉오리를 피워냈다면, 2기 위원회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일처럼 번창하기를 응원한다.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예정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기원한다.

社說

국립의대 용역 공개, 5자 회동 불참 명분 없다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현안과 관련해 전남도가 정면 돌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순천시가 '5자 회동'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3년 전 전남도의 국립 의대 관련 용역 결과를 지난 13일 전격 공개했다.

2021년 실시한 용역에는 전남 동·서부권의 의료 환경과 설립 방안, 비용 효과, 도민 요구도 조사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선 동·서부권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역 갈등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이었던 전남도가 전격적으로 공개에 나선 것은 지난 12일 5자 회동에 불참한 순천대와 순천시가 전남도 주관의 공모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14일에는 포럼을 갖고 지역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과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등 공모 방식 4대 원칙과 함께 향후 3단계로 나눠 공정하게 검토·그린다는 계획을 내 생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말도 공개했다.

전남도의 3년 전 용역 결과 발표와 향후 진행할 공모 4대 원칙을 공개함에 따라 순천대와 순천시는 17일로 논의되고 있는 5자 회동에 불참할 명분을 잃게 됐다. 순천지역에선 전남도 주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년 전 용역 결과 공개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전남도는 공모에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도 나머지 2개 요구 조건도 대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국립 의대 선정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적법한 행정행위다. 순천에선 정지권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공모가 법적 권한 밖이거나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며 그동안 판지를 걸어왔다. 이제부터는 반대 논리로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남도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건없는 5자 회동 복귀를 기대한다.

람사르 등록 '평두메습지' 체계적 관리 계기로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국제적인 생태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주지역 첫 번째 람사르 습지이자 도심 인근 습지로는 한강습지, 고양 장항습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평두메습지(광주시 북구 화양동 530 일원·2.3ha)는 경작을 중단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만들어진 이른바 '묵논습지'로 독특한 지형구조를 갖는 데다, 희귀식물인 낙지다리과 수달과 단비 등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해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확인됐다. 생태학적 보존 가치와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것이다.

특히 람사르 습지 등록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복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힘써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물론 다양한 습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이 인근 경작지와 계곡에서 유입된 토사로 육상화 현상이 진행될 구간에 대해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러한 성과도 등록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원사업 결과 수생식물, 곤충, 양서류 등 다양한 종류를 먹이로 하는 최상위 포식자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숲(Ⅱ급), 담비(Ⅱ급), 팔색조(Ⅱ급)와 수달(Ⅰ급)을 포함해 너구리, 청둥오리, 원앙, 왜가리 등 다양한 동물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제 평두메습지는 세계가 주목하고 보호해야 하는 습지가 됐다. 등록이 끝이 아닌 만큼 특별보호구역 확대 등 체계적 보전과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번 람사르 등록을 계기로 평두메습지뿐만 아니라 생태계 건전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심 녹지공간인 황룡강 천변과 광주천 등의 자연 생태계 보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無等鼓

계단을 내려오는 소녀는 울고 있었다. "너무 잘했어. 팬텀아." 어깨를 다독이는 엄마의 말에 소녀는 설움이 더 북받치는 듯 했다. 걸음을 옮기자 이번에는 들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정말 잘했어. 금상 받을 것 같아." 친구의 말에 당사자는 씩스러운 듯 웃었다. 첫 장면에서는 안타까웠다가, 두 번째 장면에서는 기분이 좋아 같이 웃었다.

얼마 전 제69회 호남예술제 경연장에서 만난 풍경이다. 호남신학대에서 열린 이날 경연은 피아노 부문으로 참가자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9번' 등 지정곡 3곡 가운데 한국을 연주했다. 호남예술제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 피아노다. 이날 경연은 중등부. 아무래도 초등학교생들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연에 참여하고, 고등부는 전공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중학생들은 취미로 할 것인지, 피아노를 계속할 것인지 갈림길에 선 경우가 많아 본인이나 가족이 나서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객석에 앉기 전 살짝 무대 옆 대기실을 들여다봤다. 순번을 기다리며 나란히 앉은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객석에 앉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객석 정중앙 좌석은 마치 카메라 기자의 자리 같았다. 자신의 아이가 등장하면 부모들은 휴대폰으로 연주 모습을 촬영한 후 그 다음 사람에게 바로 자리를 내주곤 했다.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나 임윤찬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다 싶었다. 인터넷에서 옛날 두 사람의 중학교 시절 연주 모습을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다. 끝표에 '박세리 키즈'가 있었던 것처럼 조성진과 임윤찬을 보며 멋진 아티스트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음악, 무용, 미술 등 각 분야에서 예술꿈나무들을 발굴해 온 호남예술제가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다. 1956년 대회가 열린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온 역사다. 이날 경연장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그들의 꿈을 응원한다. 더불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다.

/김미은 여른메세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